

住居空間利用에 있어 家具의 悲劇的 存在

張 明 洙

全北大 建築工學科 教授

1. 문제의 제기

住居는 人間의 안식처로서 生活의 기본적 터전이다. 住宅에서 행해지는 것은 衣食住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건강, 勞動의 能率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고 있다. 이러한 生活을 영위하는데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人間과 더불어 살아가는 生活用具의 存在價値이다.

生活用具에는 外部空間에서 사용되는 것과 内部空間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때 住宅內에서는 주로 内部空間에서 사용하는 生活用品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또한 生活用具라 해도 그 내용은 대단히 다양하고 여러분야에 쓰이는 것들이 대상이 된다.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의복이 주가 될 것이고 취침에서는 이불이나 요가 주가 된다. 취사에 있어서는 취사기구가 있으며 기타 청소도구와 잡다한 생활용품이 나열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용구는 주생활에 있어 필수적 보조용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수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많은 생활용구는 인간과 동시에 住宅內에서 사용됨에 따라 흔히 사람반 물건반이라 하듯 주거기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에 속한다. 住宅하면 人間이 生存하는 것이지만 住居하면 人間과 보조용구가 동시에 생활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용구는 잡다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간수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先史時代 이후 생활용구의 간수는 처음에는 住宅內 구석진 장소를 마련하여 간수하기도 하고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간수하기도 하는 이중적 처리로 병행되었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차차 住居活動에서 空間活用に 방해가 되지 않는 최대의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것이 곧 收納空間과 家具配置라는 機能的 分化로 表出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收納空間은 住宅에서 여백의 空間을 주로 이용하여 面積節約의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가구는 생활용구의 종류에 따라 정돈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발달되었고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工藝品같은 構成美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한데 문제는 家具가 발달하면서 住宅內에서 過다한 面積을 차지하여 生活을 방해하는가 하면 收納空間이 縮小되기도 하여 住居空間의 利用에 있어 甚다한 障礙 조건이 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에 관한 심층적 研究가 故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따라서 住居空間과 收納空間 및 家具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현실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 취지에 속한다.

2. 韓屋의 空間利用上 合理性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은 韓屋이다. 先史時代의 竪穴住居에서 오늘의 韓屋의 平面과 樣式이 定立된 것은 三國時代의 일이다. 韓屋을 研究대상으로 하는 경우 士, 農, 工, 商의 階層에 따라 다르고 城廓內의 住宅과 農村의 住宅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朝鮮時代의 표준적 庶民住宅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韓屋에는 北方文化와 南方文化가 同時에 導入되어 있다. 北方文化에서는 우리나라 특유한 온돌이 발달되었고 南方文化는 대청이 방과 방 사이에 배치되어 연락복도의 역할도 하고 여름에는 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문을 닫고 폐쇄형 주택이 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문을 열고 대청까지 합하여 개방형 주택이 된다.

폐쇄형 주택일 때는 住居空間이 좁아지고 개방형 주택일 때는 住居面積이 넓어지기 때문에 폐쇄형을 중심으로 주거면적을 고도이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 왔다. 흔히 4間겹집을 외관으로 보면 대단히 넓고 큰 주택처럼 보인다. 기와를 올린 용마루지붕은 거대하면서 날아갈듯 곡선미를 자랑한다.

4間겹집 측면 2間半인 前後퇴의 면적을 셈해볼 때 사실은 보기보다 협소한 주택에 불과하다. 1間을 표준으로 10尺로 잡으면 28坪이지만 대개 1間을 9尺로 하고 심지어 8尺도 있다. 1間을 9尺로 잡으면 23坪이고 8尺로 잡으면 18坪에 불과하다. 이렇듯 좁은 住居空間을 先祖들은 넓게 사용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다.

바로 住宅面積을 自然속으로 연장하는 방법과 房의 用途를 複合的으로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강구되었다. 住宅面積의 延長方法은 따뜻한 계절 개방형 주택의 경우 대청에서 마루로 나와 토방과 뜰로 연계되고 마당을 지나 울타리까지 연장하며 屋內半 屋外半의 넓은 住居空間을 확보하였다.

대청과 마루까지는 內部空間이고 토방은 흙바닥이지만 문자 그대로 흙의 房인 土房이고 뜰은 한단 밑 마당에 속하지만 뜰房이라 하여 일부 外部空間을 半內部空間과 같은 房의 연장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生活空間은 방이나 마루에서 먼산을 바라보고 이마받이 하는 自然導入과 토방이나 뜰방에 멍석이나 자리를 깔고 自然속에 生活하는 住居面積 擴大를 실현하였다.

房의 用途를 複合的으로 사용하여 住居面積을 增加시키는 방도로서 1室多用途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부자리를 깔고 자면 寢室이고 밥상을 들여다 먹으면 食堂이고 요강을 사용할 때는 변소가 되며 모두 치우면 居室이 된다. 洋式住宅처럼 空間이나 房의 機能이 分化가 되지 아니한 탓이라 하더라도 좁은 면적에서 機能마다 房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좁은 住居空間을 넓게 사용하는 기막힌 지혜가 발달된 것이다.

이렇듯 제한된 住居空間을 增加 내지 擴大사용하면서 바로 收納空間도 같은 이치로 처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아무리 住居空間의 利用을 擴大했다 하더라도 家具가 넓게 자리잡아 버리면 효용성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住宅構造上 쓸모없는 곳, 버려진 곳, 여백 등을 高度利用하는 收納空間이 발달하게 되었다.

3. 收納空間의 發達

收納의 場所란 물건이나 家具 등을 정리해 넣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물건을 간수한다라고 했지 收納이란 말은 사용한 흔적이 없다. 1960年代부터 近代的 住宅을 建立하면서 뒷받침할 만한 住宅理論이 전개되었고 그 경우 物品을 整理하는 곳을 收藏하는 場所라고 부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70年代에 이르러 大學의 家庭科에서 住居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收納空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收納이라는 말은 받아 거두어 남입한다는 뜻으로 주로 現金의 收納을 의미하였다. 그런데도 日本의 住居學을 직수입하여 무분별하게 日本式으로 收納空間이라 하면서 오늘날은 住居學 전문용어로 정착되어 버렸다.

이 시점에서는 共用語로 통용되기 때문에 收納空間으로 부르기로 한다. 住居生活을 해오면서 收納空間과 家具의 발달은 同時性이 있는 것이지만 農業을 배경으로 어려운 經濟하에 살았던 時代相으로 보면 家具의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收納空間이 먼저 발달하였다고 판단된다. 住宅內의 구석 구석에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는 住宅에서 構造상의 편익을 이용하여 收納空間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으리라 본다.

특히 韓屋은 부엌 바닥은 地表보다 낮게 파내고 房은 부뚜막보다 높게 구들을 놓았으며 대청은 그 보다 더 높게 마루를 깔아 구성하고 보니 단계적 높낮이에서 여백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계단식으로 구성된 높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여러종류의 收納空間을 造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收納空間을 편의상 3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高床收納, 平面收納, 簡易收納이라고 이름지어 본다.

高床收納은 벽장 다락, 더그매 등 平面收納은 골방 반침 등 簡易收納은 시정,

선반, 덕 등을 들 수 있다.

高床收納은 바로 부엌이 낮기 때문에 그 윗 지붕까지의 空間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벽장을 부뚜막 위 空間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다락은 부엌 천장위에 2층 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다. 더그매는 다락 천장과 지붕 사이의 空間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방에 벽장에 올라가만 다락을 지나 더그매(지붕) 까지 관통될 수 있었다. 때로 다락과 더그매의 명칭이 혼동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그매를 南原地方에서 공로(空樓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平面收納에서 골방(谷房)은 큰방의 뒤 또는 한 옆에 달린 아주 작은 방으로 주로 물건의 저장에 이용하였다. 반침(半寢)은 큰 방에 붙은 작은 방을 가르키고 있다. 하지만 光復後 倭式 住宅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서 오시이레(押し入れ)라는 미닫이의 고단식 저장실이 우리의 낱말에는 없었던 까닭에 일부 건축인들이 궁색하게 반침이라 부르면서 이제는 정착되어 가구 등을 정리하는 작은 방을 반침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원래 반침이라는 뜻은 큰방에 붙은 작은것을 朝鮮時代 宮中에서 불렀던 낱말이었다. 寢具, 衣服 등을 간수하는 室로서 半間房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 반침이라고 부르는 室은 기실 전통적 韓屋에서 안방 옷목에 붙어있는 옷방(上房)과 같은 역할의 용도이기 때문에 반침이라는 곳은 옷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명칭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반침으로 굳어져 버렸으니 그대로 通用할 수 밖에 없다.

簡易收納은 그야말로 간단한 물건을 얹어 놓는 곳이다. 시렁은 마루위나 천장 밑에 두 개의 장나무를 가로 질러 물건을 얹어 놓는 곳이다. 선반도 마루위나 천장 밑에 까치발을 받치어 널빤지를 매달아 물건을 얹어 놓는 곳이다. 덕(더기라고도 한다)은 외부공간에서는 나무가지 사이나 작대기를 어울린 위에 걸쳐 매놓은 시렁을 가르키고 있으니 内部空間에서도 장대 한개를 이리 저리 걸쳐 간단한 시렁으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考案한 바와 같이 韓屋의 收納空間은 다양할 뿐 아니라 有用한 韓式住宅에 있어 유틸리티(utility), 베란다(veranda), 벨코니(balcony) 등의 저장 장소가 없는 바는 아니나 원래가 비정착적 유목민족인 그들인지라 近代的住宅 이전에는 收納空間의 발달을 보지 못했다. 이를테면 立體的 收納보다는 平面的 收納장소로서 房의 機能이 分化되어 갔을 뿐이다.

여기에 비해 韓屋의 收納空間은 부엌이 낮고 방과 마루가 높은 높 낮이를 이용하여 構造的으로 收納空間이 발달되어 온 것이다. 아마도 세계 어느 나라 주택에서도 韓屋같은 收納空間의 발달을 찾아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收納空間의 발달로 家具의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특히 朝鮮時代に 手工業的 家具

生産은 소량이었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서민들의 家具購入이 어렵다 보니까 더욱 收納空間의 발달을 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家具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家具와 收納空間의 相關關係가 규명되어야 할 일이다.

4. 住空間에서 家具의 存在

家具는 집안 살림에 쓰이는 기구이다. 家具는 의자, 책상, 침대 등 可動家具와 옷장, 이불장, 책장 등 收納家具로 분류할 수 있다. 收納家具가 바로 生活用具를 정리하는 상자로서 장(襪), 농(籠)이라 지칭하고 있다.

장은 옷장, 이불장, 찬장, 책장 등 물건을 넣는 기구의 총칭이고 농은 버들채 싸리 따위로 함처럼 만들어 옷 따위를 넣어 두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類의 종류와 명칭이 대단히 많아서 전부를 나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가구나 용구가 上流住宅에서는 화려하고 종류도 많지만 庶民住宅에 이르면 구입의 어려움 때문에 그다지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의 양반가는 住宅의 規模도 크고 채(棟)의 분화로 각 방마다 家具의 배열이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庶民住宅은 집한 채가 보통이고 규모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구의 가지수와 배치는 작아지기 마련이다. 안방의 경우 한개의 농이 있거나 고귀작에 의류를 수장하였을 것이고 반질고리는 농위에 없어두는 정도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衣類의 수장가구가 모자라고 일상복은 자주 갈아 입어야 하므로 벽에 햇대를 질어 임시로 수장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面積점유의 가구가 배제되고 立體위주의 수장방법이 강구된 것이다. 결국 방의 배치에서도 골방이나 반침같은 면적의존 수장보다는 벽장, 다락 등의 여백利用과 시렁, 선반 등 매달아서 이용하는 방법이 발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부엌이 낮으니까 거의 만들어져 있었으나 부엌이 좁은 경우는 다락도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때 마루(대청) 위는 서까래가 노출되어 연등천장이 됨으로 대들보 위에 덕을 만들어 제사때 사용하는 소반, 병풍 등을 엮어 들 정도로 가구로 인한 면적점유가 배제되었다. 서민주택에서 收納家具보다는 收納空間을 더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을 때 그보다 초라한 살림집의 경우는 가구도 구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住宅內에서 家具를 배치할 面積 조차 없었음이 자명하다.

이런 경우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엽까지의 住宅事情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韓末 西海岸을 향해하다가 大阮君 무덤을 도굴하려는 오페르트(operte)의 朝鮮紀行에서 大都市에는 기와집이 있으나 郡이나 촌락에서는 郡守의 집만이 기와이고 그외는 거칠은 진흙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農村집은 방이 둘 또는 셋

이상 있는 것이 드물며 문은 진흙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창은 油紙로 발랐고 집에는 거의 널마루가 없이 땅바닥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위것은 農村住宅이니까 그렇다 하고 당시 漢城의 경우 러시아大藏省이 펴낸 韓國誌에서 官衙는 木造기와로 되어 있으나 民家は 집의 높이가 4.7尺에 불과하여 天井에 머리가 닿고 넓이는 큰 것이 4坪余이나 3坪이내도 많고 진흙으로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韓末(1882年)에 정부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독일인 뮐렌드르흐(Möllendorf)의 부인이 쓴 滯韓日記에서도 서울의 집들은 낮으며 나무와 종이로 지어지고 외벽은 흙으로 되어 있으나 딱 얇다. 전체의 인상은 노천의 집시들 천막촌을 보는 것만 같았다 라고 적고 있다.

이상의 외에도 구한말에 우리나라 民家を 기록한 문헌이 많이 있지만 한결같이 주택의 규모가 작고 초라함을 적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살림집에서 사는 민초들이 家具를 놓고 살았을리 만무하다. 그들도 살아가자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구는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수납해야 했을 것이다. 결국 가난한 그들은 家具依存 보다는 방이 아닌 여백空間에 의존하면서 用具를 收納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家具와 收納에 관한 原論은 上流住宅과 庶民住宅이 중심이 되어 논의 되어 왔으나 그것은 부유층이 대상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한 계층의 住宅은 家具보다는 收納空間 처리가 주였음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민 주택의 경우도 住宅의 構造上 收納空間이 많기 때문에 家具의존을 앓더라고 생활의 불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洋式住宅이 도입되면서 住宅과 家具사이에 새로운 變化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최초의 西歐式 建물이 建立된 것은 1879年 釜山の 日本管理局이 호시이다. 住宅으로서는 1911年 安國洞教會 목사관이 처음으로 洋式기법이 가미된 韓式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洋式을 짓는다 해도 사랑채는 洋式으로 하더라도 몸채는 韓式으로 건립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순수한 洋式化는 되지 아니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만 住宅 内外부에 洋式이나 倭式의 要素가 스며들었을 뿐이다. 그중에 부엌이 在來式에서 改良되어 立式 부엌化되어 배선대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서 부엌이 높아지는 반대 현상으로 벽장, 다락, 더그매가 없어져 버렸다. 또한 洋式이나 아파트처럼 폐쇄형 주택이 되고 보니 바깥마루나 처마밑이 없어져 시렁이나 선반도 걸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단군성조이래로 가장 잘 살게 되니까 졸부들이 다투어 크고 호화스런 장농을 소유하게 되었다. 결국 收納空間의 소멸과 동시에 호화가구가 등장하여 住宅內는 家具의 독점과 收納空間의 귀멸이라는 현상을 빚어내고 말았다. 이제는

收納空間은 곧 收納家具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아방궁같이 50坪 심지어 100坪에 이르는 住宅面積이 넓은 경우는 4DLK(이것도 日本用語이지만)로서 機能이 空間적으로 分化되어 家具가 배치되어도 그다지 住宅面積을 침식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住宅面積이 20坪이하이거나 영구임대 아파트 7-12坪의 경우는 收納空間이 전혀 없는 한편에서 家具로 收納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家具面積으로 인하여 주택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사람반 물건반이 아니라 家具가 독점되고 人間은 비켜 살아야 할 만큼 生活空間은 수축되어 버렸다. 家具의 存在價値를 다시 규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5. 家具의 占有面積

오늘의 住居生活에서 家具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1992년 10월 29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建築學科 2-3學年生 80명을 상대로 조사표를 수집한 결과 <表 1>과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表 1> 기존 住宅에서 家具가 차지하는 비율

區 分	坪 數		
	20 ~ 26	27 ~ 30	31 ~ 50
平均 家具占有率 (%)	18.4	17.8	14.5
最下 家具占有率 (%)	21.6	11.4	11.4
最高 家具占有率 (%)	36.0	30.0	25.6
平均 家具數 (個)	13.3	11.0	23.0
平均 家具數 (人)	5.0	5.0	5.4

住宅面積은 20坪에서 50坪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주택면적이 좁을수록 가구면적의 평균치가 높아졌고 최고비율도 역시 높아졌다. 이것은 평균 가족수는 동일하고 生活用品은 비슷한데 주거면적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구면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좁은 주거의 경우를 고찰하기 위하여 全州市 平和洞에 있는 永久賃貸住宅 7坪, 8坪, 12坪의 3類型을 직접 현지에서 1992년 11월 5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號數는 한類型當 20戶로 하였고 총 60戶를 대상으로 하여 <表 2>와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表 2> 永久賃貸住宅에서 家具가 차지하는 비율

區 分	平 均	7	9	12
平均 家具占有率(%)		21.7	24.4	16.1
最下 家具占有率(%)		15.7	11.0	11.9
最高 家具占有率(%)		29.0	18.3	46.8
平均 家具數 (%)		8.3	12.0	12.0
平均 家具數 (人)		5.7	4.9	5.7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面積이 좁을수록 가구가 차지하는 평균면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20坪이상의 기존주택의 경우와 같은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주택면적에서 家具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이상적이나 할 때 평균 10%내외가 꼽히고 있다.

그야 낮아질수록 주거면적이 넓어질 것이고 높아질수록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최고면적에서 기존 주택에서는 25.6%에서 36%인데 비해 영구임대주택은 18%에서 46.8%까지 이르고 있다. 46.8%라면 거의 주거면적의 반절을 家具가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12坪중에서 家具가 거의 5坪차지하고 사람은 7坪에서 살고 있다는 이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상적 家具面積이 10%内外라고 한다면 애당초 주택을 建立할 때 최소한 10%内外의 불박이 수납공간을 만들어줘야 함이 타당하다 함에도 현관 머리위에 작은 신발장 하나가 매달려 있을 뿐 불박이 수납장은 전혀 없다. 거꾸로 12坪에는 화장실속에 욕조마저 배치했으니 면적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비해 日本의 경우는 아무리 작은 5-6평의 住宅이라도 이불장과 옷장은 반드시 불박이로 배치한다.

우리도 신축시 10%内外의 불박이 수납장을 만든다면 가구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住宅面積이 그 만큼 增加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住宅이고 이불장, 옷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불박이를 미리배치하면 튀어나온 家具보다는 면적이 절약될 것이고 家具에 소비하는 돈이 절약될 것이다.

家具의 가격만 하더라도 비싼것은 몇천만원, 싸도 몇백만원 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이사다니는 회수가 많은 나라에서 이삿날 슬레잡듯 이삿짐이 운반되는 속에서 장농의 운반으로 소비되는 경제와 시간의 낭비를 생각해 보자. 만일 불박이 장농이 어느 집이나 구비되어 있다면 장농사치로 인한 낭비는 방지될 수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7-12坪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더욱 불박이가 절실하다. 게다가 화장실 속의 욕조는 제거해서 샤워꼭지로 대응하고 천정을 머리만 닿지 않는 곳이면

시령, 선반 등을 매달고, 방문 하나 짚은 행사 때 교자상으로 쓸 수 있게 뿔 수 있도록 하며 식탁은 평상시는 벽에 붙게, 의자는 높혀 침대용으로 쓸 수 있는 조립식 등의 뒷받침이 있으면 가구면적은 감소되고 주거면적은 배증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生活水準이 높아질수록 어느 나라나 多家具現象은 나타나고 家具가 증가할 수록 狹小感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다만 先進國일수록 불박이 등과 組立式 家具의 開發로 협소함을 극복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강구된 바 없이 住宅의 量的 建立에만 열중하고 住宅面積의 實質的 손실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住宅觀은 다를 수 있으나 넓은 空間에서 快適하게 살려는 욕망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快適은 커녕 家具에 짓눌려 살아가면서도 대책강구가 없다면 그것은 비극에 속한다.

6. 結 論

오늘날 住居問題라고 하면 不足住宅 공급에 주안을 두고 있다. 都市의 人口集中으로 말미암아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만성적 부족상태를 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간의 주택정책이 구입 능력이 있는 中流層 이상의 住宅供給에 주안을 두어 왔고 영리를 추구하는 住宅事業者들이 호화주택만을 건립한 結果 住宅의 空間 利用의 合理的 研究가 결여되어 왔다.

不足住宅을 해결하기 위하여 量的 擴大만을 피하여 戶數主義 일변도는 住宅의 質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반대로 호화주택은 규모가 크고 面積이 넓어 오히려 호화家具가 허영심을 북돋는 도구화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로 적정면적의 住宅에서 空間利用의 變度化라던가 家具배치의 實質面積의 增大을 위한 多面的 研究가 뒷전에 밀리고 말았다.

게다가 先祖들이 남겨준 收納空間의 지혜로운 면면들이 洋式化, 아파트化的 住宅改善으로 인하여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렸다. 일부의 建築家들은 거대빌딩과 대규모 건물의 설계에 몰두하여 民草들의 民家의 合目的的 空間利用에 관해서는 외면해 버렸다. 所得이 높아지고 일확천금의 졸부들이 늘어나면서 과소비 생활로 인하여 의복, 생활용품 할 것 없이 사치가 늘어났고 명달아 家具는 천문학적 가격이 더 잘 팔리는 세태가 되어 버렸다.

아방궁 住宅의 호화家具는 호사와 多家具현상이 일어나도 住宅面積 감소와는 별로 문제가 없다. 반면에 中産層이나 서민住宅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갔고 소형주택에서는 수납공간의 구조적 해결이 없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家具를 들여놓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實質住居면적은 감소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住居環境의 쾌적성은 住宅 自體가 중심이 되어 주변의 환경에까지 광범위하게 연계되는 것이라면 根本은 人間의 城인 住宅의 質的 向上이 있어 마땅하다. 質이란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內部的 平面計劃, 材料의 질감, 中央난방식의 구비 등으로 좋은 환경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家具의 점유율이 높아 갇힌 속에서 새우잠을 자야 한다면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住居에 관련된 學問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것은 家具에 의존하지 않는 收納空間의 구비만이 첩경이라 할 것이다. 家具라 할지라도 옷장과 이불장은 불박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타 家具는 面積依存型이 아닌 組立式과 벽면 천정을 이용하여 붙이고 매다는 方法들이 研究되어야 할 일이다.

주어진 面積에 가족수에 비례하여 넓은 空間을 使用할 수 있는 標準的 設計圖의 作成과 人間工學的 해결방법의 모색이 있어 마땅한 일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왕실과 貴族社會를 빼 놓고 그렇듯 고액의 家具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것처럼 많은 家具店이 있지를 않다. 住宅에서 家具로 부터의 해방이 곧 家庭의 正화라 할 수 있고 오늘같은 家具에 종속된 듯한 住居環境이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家具는 비극적 存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參 考 文 獻

- 金鴻植 : 民族建築論, 한길사, 1988.
申榮勳 : 한국의 살림집(上), 說話堂, 1983.
張明郁 : 住居學,
宋南哲 : 韓國住居建築, 日志社, 1980.
金儀遠 : 韓國國土開發史研究, 大學圖書, 1982.
尹一柱 : 韓國·洋式建築80年史, 治庭文化史, 1966.